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HOW TO PARTY WITH AN INFANT

가제 : 아기 데리고 파티 즐기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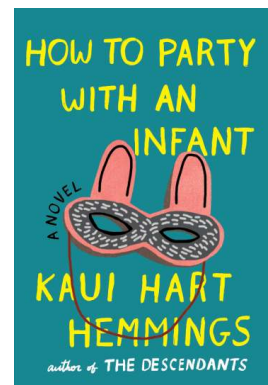
저자 : Kauai Hart Hemmings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6년 8월 9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소설



초보 엄마가 홀로 치르는 육아 전쟁, 큰 웃음과 감동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유쾌한 이야기

‘샌프란시스코 엄마 클럽’ 회원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멜레 바트는 클럽이 주최하는 레시피 콘테스트에 참여할 생각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멜레는 자신이 엄마 클럽 같은 단체에 가입을 한다거나, 아기가 있는 사람들과 절친한 사이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남자친구였던 바비와 잘 지내던 무렵 덜컥 임신이 됐고, 예상치 못했던 그 사태를 바비에게 알렸을 때 돌아온 반응은 훨씬 더 상상을 초월했다. 사실 멜레는 바비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청혼 하리라 내심 기대했는데, 그의 입에선 뜻밖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 다른 여자와 이미 약혼을 했다는 것이다. 순 거짓말쟁이, 사기꾼과 만난 걸로도 모자라 아이까지 생기다니! 멜레는 당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생긴 아이는 그냥 낳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미혼모라는 타이틀이 달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천사 같은 딸 엘리를 무사히 낳은 지도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 멜레가 초보 엄마 딱지를 떼고 당당히 살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어졌다.

엘리의 친부인 바비가 약혼녀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급기야 멜레를 찾아와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했다. 아장아장 걷는 엘리에게 결혼식에서 신랑신부 행진 시간에 꽃 뿌리는 일을 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백년가약을 맺는 행사에서, 그가 외면한 뒤 홀로 낳고 키운 딸을 데리고 참석하는 것이, 심지어 그 딸에게 화동을 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멜레는 대번에 거절하고 모른 척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바비에 대한 마음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 그를 정말로 떠나보낼 때가 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멜레는 작별 선물이라 생각하고, 바비가 그 잘

난 여자친구와, 그 치즈도 손수 만들 줄 알고 외모도 지성도 그리 완벽하다는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날 엘리와 함께 참석하고 부탁도 들어주겠다고 대답해버렸다.

애 아빠와 다른 여자의 결혼식, 레시피 콘테스트로 승부수를 띄운 씩씩한 싱글맘

하지만 바비의 결혼식만 생각하면 초조해서 미칠 지경이 되고 말았다. 월 입고 가지? 파트너로 누구를 데려가지? 멜레가 엄마 클럽의 레시피 콘테스트에 응모하기로 한 것도, 가만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였다. 뭐라도 해서 정신을 분산시켜야 했다.

클럽 임원들이 엄격히 심사할 이번 콘테스트는 그저 참신한 레시피만 제출하면 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참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 음식을 좋아하고 잘 만들게 되었는지 속속들이 알고 싶어했다. 스토리가 있는 요리, 사연이 담긴 요리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참가자가 작성해야 하는 설문지에는 그 모든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멜레는 정성껏 설문지를 쓰면서, 엘리를 홀로 키워온 지난 시간들과 엘리가 생후 6개월쯤 됐을 때 엄마 클럽에 처음 가입했던 일, 그곳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을 떠올렸다. 애니, 바렛, 조지아, 그리고 아내 대신 아기를 도맡아 키우는 아빠 회원 헨리까지, 네 사람은 이제 멜레에게 더없이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문득, 멜레는 이 네 사람의 삶도 궁금해졌다. 친구들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레시피 아이디어가 자연스레 솟을 것만 같았다. 바비의 결혼식을 앞두고 혼란 일색이었던 멜레의 마음도 절친한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서서히 치유되어 간다.

씩씩하게 아기를 키우는 엉뚱하고 유쾌한 싱글맘 멜레가 지뢰밭이나 다름 없는 ‘엄마 되기 전쟁’에서 발 끝으로 전쟁터를 총총거리며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과정이 작가 특유의 배꼽 잡는 유머감과 신랄한 풍자, 너무나 현실적인 인물들과 잘 어우러져 펼쳐진다. 전혀 억지스럽지 않은 상황들과 웃다가 눈물을 썩 뺄 정도로 뛰어난 작가의 타고난 코믹한 묘사 솜씨는 그저 감탄을 자아낸다.

<저자 소개>

카우아이 하트 헤밍스(Kauai Hart Hemmings)는 콜로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데뷔 소설 『THE DESCENDANTS』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며 22개국에 출간됐다. 해당 소설은 현재 오스카 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페인이 감독을 맡고 조지 클루니가 출연하는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그 밖에도 『HOUSE OF THIEVES』, 『THE POSSIBILITIES』, YA 소설 『JUNIORS』 등을 썼다.

제목 : FISHING WITH RAYANNE

가제 : 레이앤 낚시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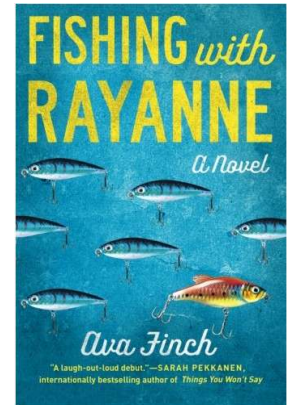
저자 : Ava Finch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5년 11월 3일

분량 : 318 페이지

장르 : 소설



남자들이 득시글대는 프로 낚시꾼의 세계에서 벗어나 ‘배 위의 오프라 쇼’를 시작한 여자 낚시꾼

여자 프로 낚시꾼의 삶, 레이앤이 택한 그 특별한 삶은 남들 눈에 좋아 보이거나 멋지고 그럴 듯한 쪽과는 거리가 멀었다. 온통 남자들로 득시글거리는 그 불균형한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다 훌쩍 서른 남짓한 나이가 된 레이앤은 그 오랜 꿈을 깨끗이 포기하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모터보트 ‘페넬로페’ 호에 여성 손님을 초대해서, 두 여자가 낚시를 하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오프라 원프리 쇼가 배 위로 옮겨진 듯한 레이앤의 독특한 쇼는 시작 직전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프로듀서들은 옛날 텔레비전에나 나올 법한 길거리 토크쇼 같이라며 고개를 저어댔고, 레이앤 자신도 대체 누가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할까,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레이앤의 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답답한 세트가 아닌 자연이 배경이고, 진행을 맡은 레이앤은 방송 경력이 전혀 없다. 초대 손님이 누구든 대체로 뚱한 태도로 무뎌뚱하게 대꾸하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절묘한 순간에 남다른 유머 감각을 뽐내는 레이앤의 매력은 서서히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때부터, 낚시꾼의 꿈을 버린 후 절망에 빠져 미네아폴리스의 다 쓰러져가는 집에 이사를 왔을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큰 인기에 힘입어 레이앤의 토크쇼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지금, 프로듀서며 후원 업체들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졌다. 시청자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삼십 대부터 팔십 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시청자들이 레이앤과 여성 게스트 단 둘이서만 배에 올라 낚시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펍 즐겨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건 곧 뭔가 다른 한 방이 있어야 쇼가 계속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약속과 다름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카메라가 불편한 레이앤에게는 다른 문제도 산더미처럼 많았다. 게다가 토크쇼가 새 시즌을 맞이하자 새로운 문제들도 하나 둘 터지기 시작했다.

레이앤의 인생을 가장 고달프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로, 평생을 구제불능 바람둥이로 살아왔다. 거쳐간 여자들은 다 셀 수도 없고 결혼했던 여자도 얼마나 많았던지 아버지는 전 부인의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했다. 프로 낚시꾼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아버지 역시 낚시를 소재로 한 토크쇼 ‘배스 보난자’를 야심만만하게 시작했었다. 결과는? 첫 시즌을 끝으로 영원히 막을 내린 쇼가 되고 말았다.

말썽만 피우는 가족들, 시청률 스트레스, 앞뒤 없이 들이대는 남자, 괴짜 낚시꾼의 좌충우돌 인생

술을 입에 달고 살며 온갖 말썽은 다 피우는 아버지와 한때 결혼생활을 했던 레이앤의 엄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레이앤의 엄마는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인 버나뎃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폐경기 여성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다. 돈과 시간이 차고 넘치는 부잣집 여성들이 두 사람의 주요 타깃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인생 코치’를 자처하는 엄마가 레이앤에게도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퍼붓는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이렇듯 골칫덩어리인 탓에 레이앤이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플로리다에 사는 할머니와, 곁에 꼭 붙어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둥대는 애완견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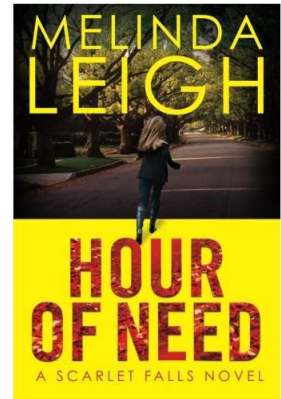
긴장 속에서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된 레이앤의 토크쇼는 제작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안도하는 것도 잠시, 제작자들은 시청률이 나날이 상승하자 이제 유명인사를 게스트로 초대해야 한다고 레이앤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평범한 여성들과 친구처럼 편안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모토로 삼고 시작한 쇼를 뿌리부터 망가뜨리려는 그 압력은 서서히 레이앤을 짓누른다. 게다가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할머니마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망이 없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이 와중에 레이앤의 쇼에 협찬을 해온 업체에서 나왔다는 어느 잘생긴 남자가 레이앤에게 다가와 대놓고 유혹한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한 때에 뽕뽕 터진 문제들, 그리고 평생을 괴롭혔던 가족 문제들이 한꺼번에 괴롭히자, 레이앤은 지금까지 그랬듯 원리원칙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봐야 할지 헛갈리기 시작한다.

솔직담백하고 유머러스하면서 명석한 레이앤이 전혀 평범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사사건건 부딪히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친근감과 함께 동지애를 느끼게 한다. 유쾌한 웃음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바 핀치(Ava Finch)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세첼트 출신으로, 현재는 미네아폴리스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데뷔 소설인 위 작품의 주인공 레이앤처럼 여가 시간에는 낚시도 즐긴다.

제목 : HOUR OF NEED
가제 : 필요한 시간
저자 : Melinda Leigh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4년 12월 9일
분량 : 327 페이지
장르 : 소설



정체불명의 범인이 저지른 살인, 미스터리와 액션, 로맨스가 완벽하게 조합된 서스펜스 시리즈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인 그랜트 바렛 소령은 전쟁터에 드나들며 숭한 죽음을 직접 목격했지만, 어느 날 전해진 비보는 살면서 겪은 그 어떤 일보다 충격적이었다. 동생 리와 리의 아내 케이트가 한꺼번에 총을 맞고 살해당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 그랜트는 곧장 미국으로 날아간다. 이제 겨우 여섯 살, 생후 4개월 된 조카들을 당장 돌볼 사람도 필요했지만 변호사로, 스케이트 강사로 평범하게 살던 두 사람을 누가, 대체 왜 무참히 살해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랜트는 30일간 임시 전역 허가를 받고 미국 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무조건 범인을 찾고 말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리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뉴욕의 스칼렛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총을 맞았다. 카슨과 페이스 두 아이는 옆집 이웃이자 리와 같은 법률회사에서 사무 보조로 일하는 엘리의 딸 줄리아가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엘리는 회사에서 이상한 지시를 받는다. 리의 집에서 사건 파일 하나를 찾아오라는 것인데, 알고 보니 그 사건은 케이트가 스케이트를 가르치던 여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따돌림에 관한 일이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리 부부가 멀리서 목숨을 잃은 날 줄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어린 카슨이 창문가에 서 성이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건 파일을 노리는 자가 또 있었다. 급기야 카슨과 줄리아를 한꺼번에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일어나자 엘리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만다. 친한 이웃이 죽은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그 잔인한 범인이 엘리의 딸까지 노리고 있었다. 미국에 도착해 사태를 파악한 그랜트는 리가 처리 중이던 스케이트장 따돌림 사건이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한다. 드러나지 않는 범인의 실체를 찾아내기에는 3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해결할 일들은 쌓여만 간다. 그리고 뜻밖의 감정도 피어났다. 1년 전, 동생 부부의 초대로 바비큐 파티에 왔다가 처음 만났던 엘리와 그랜트는 이 비극적인 일로 재회했는데, 그 직후부터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 파티에서도 둘은 곧바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늘 해외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랜트와 열일곱 너무 어린 나이에 홀로 줄리아를 낳고 키우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던 엘리는 그 감정을 애써 모른 척했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지금, 그 때의 떨림이 여전하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말았다.

십대들의 따돌림에서 번진 끔찍한 살인, 일그러진 환상을 실현시키려는 잔인한 살인자

사라진 리의 사건 파일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던 그랜트는 린지라는 십대 소녀가 극심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린지와 함께 스케이트장에 다니던 소녀 두 명이 그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컴퓨터 다루는 솜씨가 남다른 누군가 증거를 싹 지워버린 바람에 내막을 제대로 파헤칠 수가 없었다. 그랜트는 자살한 소녀를 괴롭힌 두 여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그 스케이트장에 엘리의 딸 줄리아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랜트는 회사의 지시라며 리의 파일을 찾는 엘리와 사건 당일 조카들을 돌보던 줄리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에 휩싸인다.

한편, 리와 케이트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각자 바쁘게 살던 그랜트의 두 여동생들도 서둘러 달려왔다. 유럽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나, 과학자로 연구에 인생을 건 맥까지 어릴 적 같은 추억을 남긴 고향 마을에 모였다.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된 조카들을 도맡아 돌볼 사람이 필요했지만, 다시 파병지로 돌아가야 하는 그랜트는 물론이고 한나, 맥 누구도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랜트는 죽은 리까지 네 형제가 각자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원하던 꿈을 다 이루었을진 몰라도, 가족을 돌아보거나 서로를 챙기며 사는 삶에는 너무나 인색해진 현실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그러나 괴로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이 또 다시 조카들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기 전에 서둘러 잡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엘리와 감정도, 맑은 눈동자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꼭 붙어 의지하는 꼬마 카슨과 갓난아기 페이스가 안전하게 지낼 곳도 마련해야 한다.

치밀하게 잘 짜인 스토리가 흡입력 있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상황과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 그리고 로맨스가 어느 쪽도 과하지 않게 잘 뒤섞인 서스펜스 소설이다. 시리즈 2권 『Minutes to Kill』은 2015년에 발표됐고 3권 『Seconds to Live』는 다음 달에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멜린다 레이(Melinda Leigh)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육아에 전념하느라 일을 그만두고 취미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다 작가가 천직임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 소설인 『She Can Run』은 킨들 스토어 ‘로맨틱 서스펜스’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2011년 ‘더 로맨스 리뷰(The Romance Reviews)’ 선정 최고의 도서상 결승 후보에 올랐다. 이어 ‘베스트 퍼스트 북(Best First Book)’이 수여하는 2012 ‘인터내셔널 스릴러 도서 상’ 후보로도 선정됐다. 2013년, 2014년에는 서스펜스 소설에 수여되는 ‘다프네 뒤 모리에 상(Daphne du Maurier Award)’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YELLOW ROSE BEAUTY SHOP

가제 : 노란 장미 뷰티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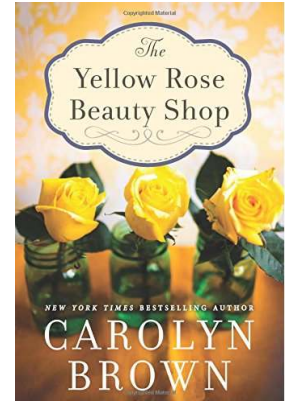
저자 : Carolyn Brown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5년 7월 14일

분량 : 313 페이지

장르 : 소설



남 일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군대기 좋아하는 텍사스 작은 동네, 여자들의 치열한 기 싸움

“우리 딸 스텔라가 손주만 낳아주면 정말 행복할텐데!” 낸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소망을 꼭 이루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택한 방법이 온 동네를 시끌시끌하게 할 소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평소 누구보다 독실한 신자였던 낸시는 신도들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소모임 ‘기도하는 천사들’에 스텔라가 얼른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는 단도직입적인 소망을 털어놓았다. 낸시가 바라는 건 손주였지만, 일단 스텔라가 결혼부터 해야 아이를 낳을 테니까. 문제는 ‘기도하는 천사들’의 총책임자인 헤더가 본래 성격이 제멋대로일 뿐만 아니라 스텔라를 지독히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낸시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헤더는 ‘옳거니, 잘 걸렸다’ 싶은 마음에 다음 날 낸시의 소망을 교회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써 붙였다.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남편이 꼭 필요하답니다. 스텔라 엄마.”

이들이 사는 텍사스 주 캐딜락은 허가 얼얼할 만큼 매운 할라피뇨 고추로 유명하지만, 소문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할라피뇨보다 훨씬 더 매섭게, 더욱 뜨겁게 일파만파 번지는 오지랖 넓은 동네였다. 사람들은 일제히 수군댔다. 겨우 스물일곱인 스텔라는 왜 그토록 남편이 간절할까?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현수막이 걸린 후에야 이 사태를 알게 된 스텔라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이게 다 못된 헤더가 일부러 저지른 일인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헤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 다가올 여름에 바비큐 파티를 겸한 무도회를 열겠다는 계획까지 내놓는다. 미혼인 신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춤을 추다 보면 짝을 만날 수도 있거나 뭐라나. 그 속내는 뻔했다. 스텔라를 생각해서 개최한 행사라고 소문을 낸 다음 어떤 식으로든 스텔라에게 큰 망신을 주려는 것이다! 스텔라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헤더가 놀려먹을 사람을 단단히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노란 장미 뷰티숍’을 운영하는 스텔라는 손님들을 통해 온갖 소문을 하도 많이 들어봐서, 무슨 소문이건 처음에만 반짝 끓어오를 뿐 이내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헤더를 저대로 둘 수는 없었다. 치밀한 계획으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스텔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뷰티숍으로 불러들인다. 유치원 시절부터 자매처럼 늘 함께 했던 단짝 친구 샬롯과 파이퍼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오만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뭉친 친구들과 뷰티숍의 단골 고객들! 그리고 숨겨진 사랑

파이퍼의 삶도 그리 순탄치 않았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느라 늘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 아버지인 진은 파이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자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돌볼 생각이 없다고 대놓고 이야기했던 몹쓸 남자였다. 그런 남자에게 호되게 당했으니, 아직 미혼인 스텔라와 샬롯에게 웬 만하면 결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었다. 샬롯은 고등학생 때 만난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막상 그 날이 다가오자 심장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겁도 나고, 달아나고 싶어진 샬롯은 그 복잡한 심경을 두 친구에게 털어 놓는다.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아는 세 명의 친구는 뷰티숍 단골고객들까지 동원하여 헤더의 무도회를 제대로 망쳐 놓을 방법을 고민한다.

하지만 이 대대적인 작전을 처음 시작한 스텔라의 머릿속에 깊은 고민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일로 사랑하는 엄마와 영원히 등을 지게 되면 어쩌나? 그리고 무엇보다, 스텔라에게는 친구들에게도 감쪽같이 숨겨온 연인이 있었다. 이제는 그의 존재를 세상에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유난히 남들 인생에 입 대는 걸 좋아하는 마을 주민들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사랑, 하지만 흔들림 없이 지켜온 소중한 사랑을 부모님께 알린다면,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스텔라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코믹한 사건들 속에서 여자들의 끈끈한 우정, 달콤한 로맨스, 가족의 깊은 사랑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롤린 브라운(Carolyn Brown)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로맨스나 현대 로맨스 소설, 카우보이 로맨스 소설 등을 주로 써온 작가로, 『THE LADIES' ROOM』 여러 작품들이 「뉴욕타임스」와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NON-FICTION

제목 : EXECUTION EXCELLENCE

가제 : 최고의 경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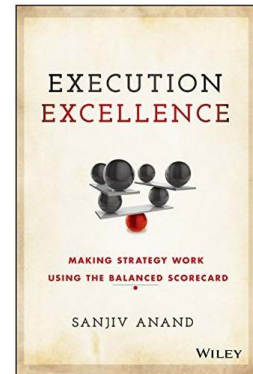
저자 : Sanjiv Anand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4월 1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영



성공적인 경영에 꼭 필요한 툴, ‘균형 성과평가표’를 제대로 설계하고 실행, 유지하는 법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은 사업가라면 누구나 손에 쥐고 싶어하는 성배와 같다. 미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전체 사업체 중 최소 절반이 훌륭한 경영 전략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생고생만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어느 나라에서 운영되든, 업무가 어떤 분야에 속하든 모두 똑같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경계가 거의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다.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업체를 대상으로 30년 이상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온 저자는 각양각색의 조직체와 일한 경험을 살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한다. ‘균형 성과평가표’의 원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각 기업이 처한 상황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균형 성과평가표란 기업의 회계기법을 단순한 관리 도구로만 활용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외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된 새로운 회계 모델이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각 조직의 목적과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와 내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설정한 중장기적 비전과 단기 목표가 다양한 측정 지표로 도출된다. 저자는 까다롭게만 느낄 수 있는 이 균형 성과표를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알게 된 점들을 종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머리만 아픈 이론적인 배경과 설명은 생략하고, 경영 전략을 현실화하는데 균형 성과평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조직 구성원 개개인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한꺼번에 끌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저자는 균형 성과평가표를 도입하고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평가 방식을 무작정 도입했거나 평가표의 설계는 꼼꼼하게 해놓고 경영상의 결과보다 실행 과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이 같은 실수를 줄이고, 적시에 올바른 방식으로 균형 성과평가표를

도입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1990년대 초에 처음 개발된 균형 성과평가표는 그 동안 등장한 경영 방식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전략으로 인정 받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수천 곳 이상의 기업들이 성과 지향적인 경영 방식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균형 성과평가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곳만큼 도입에 실패한 기업들도 많다. 조직, 산업 분야, 경영자의 개성과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성과 측정 모델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I. 전략의 실체

1. 경계가 사라진 세상,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실상 - 뉴스가 물보다 빨리 흐르고 있다!
2. 전략의 기능도 진화한다: 이제 전략은 죽었다?
3. 전략 수립: 제대로 된 전략 세우기
4. 전략 실행: 가장 중요한 단계
5. 사업 계획의 수립 절차: 절차에 발목 잡히지 마라

II. 균형 성과평가표

6. 소개: 1992년부터 현재까지
7. 성공적인 실행을 막는 걸림돌: 일단 헬멧부터 써라!

III. 균형 성과평가표의 난제

8. 전략 지도 설계: 간략해야 한다
9. 목표 설정: 언어를 잘 다루려면
10. 절대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되는 네 종류의 경영자

(이하 생략 - 총 26장)

<저자 소개>

산지브 아난드(Sanjiv Anand)는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공부하고 컨설팅 업체 'Cedar Management Consulting International'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30년간 300종이 넘는 균형 성과평가표를 개발하여 전 세계 수많은 업체의 경영 방식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제목 : GET MOMENTUM

가제 : 탄력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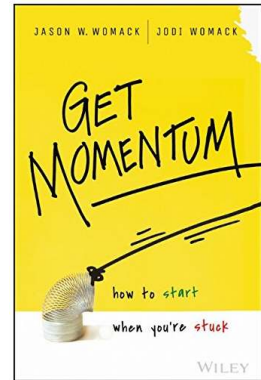
저자 : Jason W. Womack, Jodi Womack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5월 2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월 해도 진전이 없을 때, 잘 하려다 역효과만 날 때 제대로 탄력 받아 일할 수 있는 방법

살다 보면 싫어도 해야 하는 일도 많고 스스로 해내고 싶은 일도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항상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성과는커녕 왠지 허공에 발길질하는 느낌만 받을 때가 있다. 월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진전이 없는 상황, 마치 벽과 벽 사이에 끼어서 움푹달싹 못하는 처지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럼에도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또 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을 가르치며 전 세계 20개국에서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해온 두 저자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경영서가 주장하듯 ‘누구에게나 딱 맞는 해결책’ 같은 건 없다고 단언하면서, 꼭 막힌 상황을 각자가 정의하는 ‘삶의 질’에 맞게 타개하는 맞춤형 해결책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회사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일을 맡았거나, 오랫동안 해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없어지지도 않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을 스스로 찾는 길이 소개된다.

흔히 “일에 탄력이 붙었다”거나 “가속도가 붙었다”고 표현할 때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넘어서, 일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고 처음 생각한 목표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확신이 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해결하고 성취하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다. 잘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 잘 하려고 한 일들이 역효과만 낼 때 그런 탄력과 가속도만큼 절실한 것이 있을까? 두 저자는 탄력을 받아 신나게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기술, 유용한 도구를 모두 한꺼번에 알려준다. 인생이나 업무에서 세운 목표를 더 빠르게, 더욱 손쉽게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이 요소들은 스트레스에 덜 시달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저자는 “누가 이것 좀 해결해 봐!”라는 절박한 외침이 사무실이나 집 안에 가득하다면 외면하지 않고 먼저 나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 정말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면 되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팀을 조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관점과 생각을 수용하고, 사태를 정확하게,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평가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시험해보고, 실천에 옮길 때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차례로 밟아 가면 탄력은 자연스레 붙는다.

그 상태에서 성과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면 된다.

친절한 태도와 마음가짐, 책임감, 용기,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삶의 어떤 목표든 자신에게 잘 맞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유익한 책이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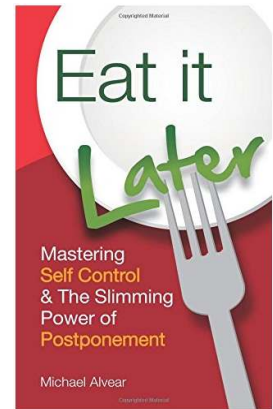
1.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끼어버린 당신
2. 탄력을 얻는 5단계 방법
3. 동기 부여
4. 멘토
5. 이정표
6. 점검
7. 수정
8. 해냈다!

<저자 소개>

제이슨 W. 워맥(Jason W. Womack)은 경영 훈련, 코칭 업체인 'The Womack Company'의 CEO로 2000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술을 안내해 왔다. 저서로는 『Your Best Just Got Better』 등이 있다.

조디 워맥(Jodi Womack)은 'Get Momentum Leadership Academy'의 CEO이자 여성 기업가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컨설팅 업체 'No More Nylons'의 설립자다.

제목 : EAT IT LATER
가제 : 좀 이따 먹어요
저자 : Michael Alvear
출판사: Woodpecker Media
발행일: 2015년 8월 4일
분량 : 166 페이지
장르 : 건강



무조건 굶고 운동하는 대신 음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살을 빼는 방법

다이어트와의 전쟁은 여전히 뜨겁다. 셀 수 없이 많은 ‘비법’과 ‘전략’이 쏟아져 나오지만, 공통점이 있다. 살을 빼려면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특정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음식은 아예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운동을 자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그것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그러니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다이어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할 일이 태산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일일이 신경을 써야만 할까? 그래도 불어난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20대 후반까지 먹고 싶은 걸 아무리 먹어도 절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다가 어느 날부터 체중이 급속도로 불어나 다이어트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저자는, 실패만 이어지던 그 고달픈 과정을 거쳐 마침내 7 킬로그램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하며 그 비결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대다수가 조언하는 비현실적인 실천 과정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고, 심지어 ‘무엇무엇은 절대로 먹지 마라’는 우울한 조언도 없다. ‘습관, 감각 둔화, 미뤄 놓기’의 세 가지 요소가 중심이 되는 저자의 새로운 식생활 방식은 비정상적인 식습관의 심리적인 문제를 정상으로 되돌려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적당히 먹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이어트에 반대하는 다이어트 책, 다이어트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책이다.

저자가 마련한 새로운 식습관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셀이 실시하여 큰 화제를 낳은 ‘마시멜로 실험’에 뿌리를 둔다. 이 실험에서는 네 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두 개를 앞에 놓고 나가면서 15분 이따가 올 테니 참고 기다리면 두 개를 다 줄 것이지만 못 참겠으면 하나를 먹으라고 했다. 단, 하나를 먹으면 그걸로 끝이고 다른 하나는 먹지 못한다고 미리 알려줬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얼른 하나를 집어 먹은 아이들도 있고, 어느 정도 참으려다가 결국 유혹을 못 이기고 하나를 먹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꼭 참았다가 두 개를 다 받은 아이들도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끝까지 참은 아이들이 15년 후, 미국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전체적으로 인성이 훌륭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제는 음식을 먹는 행위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기보다는 정신 활동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말 배고파서 먹는지 지루해서, 슬퍼서, 화가 나서, 기분이 너

무 좋아서 그냥 먹는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다이어트 전쟁이 승리로 끝난다고 설명한다.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되 양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습관을 들이는 것, 그래서 먹는 양이 약간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몸이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가 막 먹고 싶을 때는 그 욕구가 상충하 중 어느 단계인지 잠시 생각해 보고, 상 단계라고 판단될 때만 바로 먹고 그 외에는 “조금 이따가 먹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 후 잠깐 미뤄두는 것,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은 평상시에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쉬운 방법이라도 아무 고생도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인내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만 한다면, 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비이성적인 폭식과 무절제한 식습관에서 가뿐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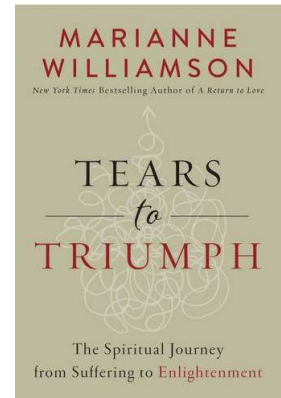
머리말

- 1장.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다이어트를 그만 하는 것
- 2장. 체계적인 감각 둔화로 폭식을 멈추는 법
- 3장.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먹는 법
- 4장. 억지로 참지 않아도 지방과 설탕 덩어리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법
- 5장. 고열량 식품, 설탕 덩어리 음식, 정크푸드 그만 먹는 법
- 6장. 별로 배가 안 고프데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 7장. 식탁에 붙어 살지 않게 된 지금, 이대로 쪽 유지하는 법

<저자 소개>

마이클 알비어(Michael Alvear)는 방송인이자 작가로,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에 방영된 TV 시리즈 ‘The Sex Inspectors’의 공동 진행자로 활약했다. 그 외에도 ‘All Things Considered’, ‘The Tyra Banks Show’, ‘The Greg Behrendt Show’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저서로는 『Not Tonight Dear』, 『I Feel Fat』 등이 있다.

제목: TEARS TO TRIUMPH
가제: 울어야 극복할 수 있다
저자: Marianne Williamson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6년 6월 14일
분량: 240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고통을 외면하는 문화, 그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아픔과 직면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는 법

인생은 결코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가끔은 그냥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힐 때, 몸이 아플 때,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영혼이 고통 속에 비명을 질러댈 때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왜 인간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이 괴로움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베스트셀러 작가로, 영적 지도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저자는 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치유법을 찾고, 문제를 초월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며 치유할 방법이 없느냐고 부르짖지만, 정작 치유의 과정이 인간의 정신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외면하려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니 고통을 받아야 비로소 시작되는 치유의 영적인 가르침, 고통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치유의 가치를 배울 길이 없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아플 때면 그저 무더질 때까지 무작정 내버려두거나, 약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예 고통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거나, 정신을 딴 데로 돌려서 고통의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이 서글픈 특징을 잘 활용해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 저자는 아픔을 외면하기만 하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발이 묶여 버릴 수밖에 없고, 고통을 피하면 성장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괴로운 건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상한 합리화로 더 깊은 지해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저자는 이 잘못된 문화와 습관에서 벗어나, 누구나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을 영적인 치유의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를 위해 석가모니, 모세, 예수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설파한 지혜를 종합하여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길을 안내한다.

종교가 무조건 인생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고 의혹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종교 속에는 그 괴로움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노력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신과 인간, 세계의 관계를 연구

하는 신학을 공부하고 아는 것만으로 편안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의 원리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며 내적 평화를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꿰뚫어 본 고통의 본질과 그것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가르침을 명쾌하고 간결하게 설명한다.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삶,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을 재발견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의미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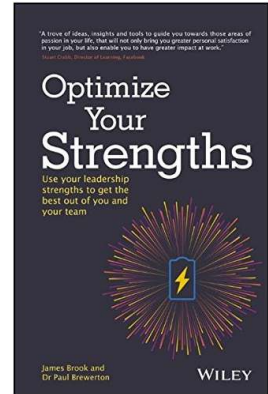
<목차>

1.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는 말에 굴복한 사람들
2.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3. 둔해지지 마라
4. 참된 자아를 찾아라
5. 용서
6. 관계, 그리고 슬픔
7. 우울이 팽배한 문화
8. 신이 인간을 변화시킬 때
9. 석가모니의 가르침
10. 모세의 가르침
11. 예수의 가르침
12. 눈물 흘리던 시간이 승리를 만든다

<저자 소개>

마리앤 윌리엄슨(Marianne Williamson)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강연가다. 『A Return to Love』, 『A Year of Miracles』, 『The Law of Divine Compensation』, 『The Gift of Change』 등 현재까지 발표한 총 10권의 저서 중 6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오프라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다.

제목 : OPTIMIZE YOUR STRENGTHS
가제 : 나만의 강점을 키워라
저자 : James Brook and Paul Brewerto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5월 2일
분량 : 16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경영



남의 장점을 본받기 전에, 이미 가지고 태어난 나만의 강점을 살려라! 리더십에 관한 새로운 시각

훌륭한 리더십 모델이나 리더십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다룰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특정한 유형의 성격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카리스마, 설득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감정 지능, 용기와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그래야 리더십이 향상되어 성공이 눈 앞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럴까? 이 책의 두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성공한 리더들을 분석해보면, 그런 주장과 사뭇 다르다는 걸 금세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리더들은 제각기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자신의 장점, 특히 ‘좋은 리더가 되기에 유리한 점’을 스스로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능력을 잘 알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연스럽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 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한 리더들에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똑같이 타인에게도 적용되어 한계를 넘어 더 큰 성과를 얻는 동력이 된다.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심하고 주변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서 조직은 기존에 없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끌어당기는 힘은 낮은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타개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훌륭한 리더는 이 끌어당기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발휘해야 하는지 잘 안다. 성공적인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린 상태에서, 그 비전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능수능란하게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리더가 자신이 이미 보유한 능력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저자는 누구나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기술, 강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이를 발굴하고 제대로 파악해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고, 발전시켜 충분히 활용하는 법을 두 저자가 개발한 ‘스트레치 리더십 모델’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여러모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가상의 인물 조의 삶과 그가 리더로서 발전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 변화의 방법을 제시한다. 소설처럼 이어지는 조의 이야기 속에 자신과 팀의 타고난 능력을 찾아 키워내는 방법부터 그 장점을 토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 단계별 모델을 통해 자신과 구성원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법을 모두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 1장. 리더십의 측면에서 나만의 강점
- 2장. 습관 1 - 비전을 공유하라 (목표의 확장)
- 3장. 습관 1 - 비전을 공유하라 (강점의 최적화)
- 4장. 습관 2 - 참여를 유도하라 (구성원의 강점 최적화)
- 5장. 습관 3 - 능수능란하게 이끌어라 (강점을 활용하는 문화)
- 6장. 습관 3 - 능수능란하게 이끌어라 (강점 활용 문화를 더욱 강화하라)
- 7장. 습관 4 - 성과를 유지하라
- 8장. 후기
- 부록. 스트레치 톨 박스

<저자 소개>

제임스 브룩(James Brook)은 20년 넘게 리더십 개발과 재능 관리 분야에서 일한 인물로 현재 리더십 컨설팅 업체 'Strengths Partnership Ltd'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다. 페이스북, ING 다이렉트, 노바티스, 테스코 등의 기업들과 함께 일했다.

폴 브루어튼(Paul Brewerton)은 심리학자로 개개인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관한 문제와 씨름하는 기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왔다. 2005년에 제임스 브룩과 함께 'Strengths Partnership Ltd'를 설립했다.

제목 : THE JANE AUSTEN WRITERS' CLUB

가제 : 제인 오스틴처럼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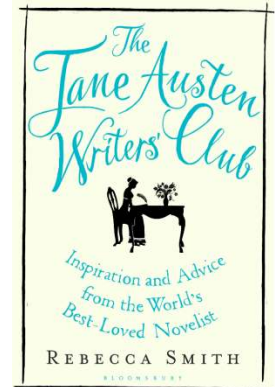
저자 : Rebecca Smith

출판사: Bloomsbury USA

발행일: 2016년 9월 2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작문/자서전



250년이 넘도록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 제인 오스틴처럼 글 쓰는 법

작가 지망생이라면 글 잘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열심히 읽는다. 주로 20세기와 21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예로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1770 년대에 태어나 지금까지도 독자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매력을 가진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서 그 오랜 인기와 명성을 낳은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만과 편견』, 『이성과 감성』, 『엠마』 등 주옥 같은 작품들로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히는 제인 오스틴. 그녀의 작품들은 250여 년이라는 시대 차가 무색할 만큼 언제 읽어도 신선하고 위트가 느껴진다. 여섯 세대를 건너 제인 오스틴의 손녀이자,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쳐온 저자는 시대를 거스르는 그 놀라운 매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제인 오스틴의 문장과 작문법에서 추적해 본다. 제인 오스틴이 어떤 방법과 장치, 트릭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작가로서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책이다. 영원히 독자들의 마음에 남는 등장인물을 탄생시키고, 기존에 없던 언어와 관점을 선구적으로 채택했던 제인 오스틴의 글쓰기 방식에서 현대 사회의 작가 지망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작가로서의 자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영국 햄프셔의 차톤에 위치한 ‘제인 오스틴 생가 박물관’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상주 작가로 일했던 저자는 제인 오스틴의 작품과 편지들, 살아 있을 당시 그녀처럼 작가가 되기를 희망했던 조카들에게 보낸 조언과 팁을 모두 읽어보면서, 그녀의 작업 방식에서 초보 작가들이 배우고 영감을 얻을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르와 상관없이,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좋아하거나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창작의 기술이 그녀의 작품과 조언 속에 담겨 있다.

억지스럽지 않은 유머 감각, 톡톡 튀는 인물들의 대화, 인상적인 인물들, 모든 것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술, 깔끔하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줄거리,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 관계를 설정하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사랑할 때,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실망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또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독특한 방식까지, 독자들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는 셀 수 없

이 많다. 저자는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점이 되는 플롯 구성과 인물, 이야기의 시작과 끝, 대화, 배경, 작문법에 있어서 제인 오스틴이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하나 하나 짚어본다. 등장인물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장면을 명료하게 묘사하여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독자가 대번에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야기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즐겨 읽는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 것 등 실용적이고 참신한 글쓰기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다양한 연습문제와 멋진 삽화, 제인 오스틴이 소설이나 편지로 남긴 말들이 다채롭게 제시된 책으로, 훌륭한 소설을 완성하고픈 지망생,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사, 제인 오스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팬 모두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계획 세우기 - 구성과 플롯, 그리고 시작하기

‘읽히고설킨 인물들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요소이다’ - 인물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법

이야기 살피우기 - 배경을 만들고 활용하는 법

섬세한 시각 - 이야기의 관점

가볍게, 경쾌하게, 톡톡 튀게 - 대화

비밀과 서스펜스 - 긴장감 넘치는 소설로 만드는 제인 오스틴만의 비법

제인 오스틴의 서랍 속 - 위대한 작가가 사용한 기술과 장치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레베카 스미스(Rebecca Smith)는 소설가로 사우샘프턴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The Bluebird Cafe』, 『Happy Birthday and All That』 등의 소설과 실용서 『Jane Austen’s Guide to Modern Life’s Dilemmas』를 발표했다.